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미 행정부는 관세 관련 '10% 보편 관세'는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
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이유는 비용을 업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소비자들이 여행과 임의 소비재 지출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4월 미 물가, 예상보다 상승세 하락
- Bloomberg: 미 달걀값 최고치에서 떨어져...꾸러미당 5불
- Bloomberg: JP모건, 미중 관세 '휴전'에 미 침체 가능성 철회

#### [미국 금융]

- WSJ: 미 국채 금리가 오늘 물가 발표후 상승
- JP 모건: 미 거시 경제와 시장에 대한 금금증은?

#### [뉴욕/뉴저지 메트로]

- WSJ: 유나이티드 항공, "뉴약 공항, 안전하다"

#### [무역 전쟁]

- YahooFinance: 미중 관세 휴전에 트럼프 소액 중국산 관세 이하

#### [오일]

- Bloomberg: 미중 관세 휴전에 트럼프 소액 중국산 관세 이하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애플, 생각으로 기기 조정 기술 추진
- WSJ: 혼다와 닛산, 미국 관세로 수익 타격 예상
- WSJ: Amazon과 FedEx 파트너십 체결
- CNN: 맥도날드, 올 여름 37만명 고용할 예정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US Consumer Prices Rose Less Than Expected in April** **4월 미 물가, 예상보다 상승세 하락**

- 4월 미 물가 지수와 핵심 물가지수가 똑같이 3월에 비해 0.2% 상승했다. 예상치 0.3% 보다 낮았다.
-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2.3% 상승으로 하락했으며 작년 동월과 비교한 핵심 물가지수는 2.8%를 유지했다. 이같은 연간 상승세는 지난 2021년 봄 이래 가장 낮은 상승세 모습이다.
- 그로서리는 0.4% 하락했으며 달걀값은 12.7%나 떨어져 지난 1984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. 반면에 거주 비용과 가구, 의료 비용, 자동차 보험이 상승

세를 보였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Bloomberg: Egg Prices Fall to \$5 a Dozen in the US From Record Highs** **미 달걀값 최고치에서 떨어져...꾸러미당 5불**

- 달걀값이 지난달 최고치에서 무려 18% 떨어졌다. 이에 따라 4월에 큰 계란 12개짜리 한 꾸러미는 5달러 12센트를 기록하고 있다. 달걀값은 생필품 물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.
- 이같이 가격이 떨어진 것은 조류독감 쇼크로부터 공급이 회복됐으며 도매 물가가 떨어진 데다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채워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Bloomberg: JPMorgan Drops US Recession Call After US-China Trade Truce**

#### **JP모건, 미중 관세 '휴전'에 미 침체 가능성 철회**

- JP모건은 올해 미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철회했다.미·중 간의 관세 90일 유예 이후에 미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을 상대적으로 올렸다.
- 이 은행은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확률로 이제는 50%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또한 올해 미 경제성장을 당초 연 0.2%에서 0.6%로 상향 조정했으며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에 근거한 물가가 당초 4%에서 3.5%로 줄어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# **[미국 금융]**

### **WSJ: Treasury Yields Edge Down After Inflation Data** **미 국채 금리가 오늘 물가 발표 후 상승**

- 오늘 화요일 미 소비자 물가가 당초보다 약하게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.977%로 약간 떨어졌다.
-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4.462%로 별다른 변동이 없이 거래되고 있다.

WSJ 기사

## JP 모건: Macro and market questions by the dozen 미 거시 경제와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?

- 트럼프노믹스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인가 침체가 될 것인가? 60% 확률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- 연준의 독립성은 위험에 노출될 것인가? 독립성은 정치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간 프리미엄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.
- 달러 약세의 원인과 ‘마라고 협약’ 가능성은?
- 달러 약세는 구조적 이유 등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과거 플라자 협정과 같은 조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.
- 노동 시장이 와해되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펼칠 것인가? 노동시장이 와해됐을 때만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. 실업률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연방 재정적자와 예산 조정 전망은? 최근 세금 감면안은 5조 달러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허용치 증가액 4.0~4.5조 달러를 넘은 수치다. 올해와 내년 지출은 아주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.
- 오일 가격 전망과 미 오일 생산 업체들에 대한 여파는? 오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OPEC+의 증산 예상 때문이다.
- 규제 완화로 경제적인 혜택이 올 것인가? 그리고 은행과 금융의 대폭적인 규정 완화 전망은? 규제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의 운영 효율성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.
- 민간신용의 급격한 성장과 관련된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인가? 민간신용은 현재 시장의 점유율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즉각적인 금융 안정성 리스크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.
- AI가 생산성에 줄 수 있는 여파는? AI는 GDP에 0.9%~1.1% 상승에 기여할 수 있고 금융 분야에도 채택 중이다.
- 미·중 디커플링은 무역전쟁이라기 보다 기술 및 지정학적 전쟁으로 규정될 수 있나?
- 단순한 무역전쟁을 넘어서 기술적/금융적 분야를 이용하면서 중국이 러시아, 북한, 이란과 군사 동맹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.
- 유럽은 재정 긴축을 없애고 특히 에너지와 국방 등 성장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? 독의 재정 변경이 광범위한 유럽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분립 상황이 주요 도전이 되고 있다.
- 일본에서 금리 정상화가 이뤄질 것인가? 통화정책 정상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엔화 절상이 금리 상승의 모멘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.

JP모건 기사

### [뉴욕/뉴저지 메트로]

#### WSJ: United CEO Reassures Customers That Newark Airport Is Safe 유나이티드 항공, “뉴왁 공항, 안전하다”

-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CEO는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‘뉴어크 리버티 인터내셔널 공항’은 절대적으로 안정하다고 고객들을 안심시켰다. 이 항공사는 향후 이용할 고객들과 뉴욕, 뉴저지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. 이 항공사는 뉴어크 리버티 공항의 최대 항공사다.

- 이는 지난 2주간 이 공항의 통신 장애 기술 문제와 관제사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.
- CEO는 매주 왕복 35편의 운항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### [무역 전쟁]

#### **Yahoo Finance: US slashes 'de minimis' tariff, China lifts Boeing ban amid trade war thaw**

#### **미중 관세 휴전에 트럼프 소액 중국산 관세 이하**

- 백악관의 어제 월요일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소액 수입품인 디 미니미스("de minimis") 관세 관련해 관세율 120%를 54%로 낮추고 1백 달러의 고정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.
- 양측이 지난 주말에 관세를 대폭으로 일시 낮춘 조치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.
- 또한 오늘 화요일 중국 정부는 당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보잉 항공기 인도를 금지했으나 이를 철회했다.

Yahoo Finance 기사

### [오일]

#### **Bloomberg: Oil Extends Relief Rally as Focus Turns to Trump in Middle East**

#### **중동지역으로 관심사 바뀌면서 오일 하락 행진**

- 미·중 무역전쟁에서 관심사가 유럽으로 옮겨 가면서 오일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브렌트유는 배럴당 65불로 이전 3일간의 거래일보다 6% 이상 상승했다.
-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관련 회담의 진전을 시사했으며 이번 주에 OPEC+의 실제 맹주 역할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게 된다.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증산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**WSJ: Apple Wants People to Control Devices With Their Thoughts**

#### **애플, 생각으로 기기 조정 기술 추진**

- 애플이 뇌 임플란트를 통해 신경 자사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. 이를 위해 뇌 신호를 읽는 전극 장치 Stentrode 개발 회사인

Synchron과 협력 중이다.

- Synchron의 장치는 뇌파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사용자가 화면을 탐색하고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러한 뇌-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(BCI)로 환자의 뇌 임플란트에 들어오는 신경신호를 포착하여 애플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.
- 이 기술로 루게릭병(ALS) 등 심각한 질병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애플 기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### **WSJ: Honda, Nissan Expect to Be Hit Hard by U.S. Tariffs**

#### **혼다와 닛산, 미국 관세로 수익 타격 예상**

- 일본의 대형 자동차 업체인 Honda와 Nissan은 미국 관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Honda는 2026년도 1분기 순이익이 70%, 즉, 약16억 8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, Nissan은 4-6월 분기에 약13억 5천만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자동차 수출이 일본의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 관세는 일본 기업의 수익과 전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### **WSJ: Amazon Seals New Partnership With FedEx for Delivering Large Packages**

#### **Amazon과 FedEx 파트너십 체결**

- Amazon은 대형 패키지를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해 FedEx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. 이러한 거래는 UPS가 올해 초 Amazon 사업의 절반 이상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졌다.
-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, 이러한 파트너십이 상호 이익이 되는 다년간 계약이라고 밝혔다.
- Amazon은 해당 계약이 UPS와의 계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파트너로 합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### **CNN: McDonald's says it plans to hire 375,000 people this summer**

#### **맥도날드, 올 여름 37만 명 고용할 예정**

- 맥도날드는 바쁜 여름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최대 37만 5천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. 이는 지난 5년 중 최대 규모의 고용이다.
- 이번 채용은 미국 내 1만 3천개 매장의 직원 채용에 집중될 것이다. 하지만 맥도날드 직원의 이직률은 100%이므로 매장에 근무하는 고용수가 증가하진 않을

것이다.

CNN 기사

### [보고서]

**미중 관세완화에...美 7개 대형 기술주 시총 1천190조원↑**  
**애플 6.3% 상승 시총 3조달러 탈환...엔비디아 5.4% 올라 120달러선 회복**  
**테슬라 6.7% 올라 2개월 반만에 300달러선 복귀...반도체지수도 7%↑**

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12일(현지시간) 뉴욕 증시에서 주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.

이날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.31% 상승한 210.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. 지난 1일(213.32달러) 이후 종가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시가총액도 3조1천480억 달러로 불어나며 3조 달러선을 회복했고,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(MS·3조3천390억 달러)를 추격했다.

이날 주가는 210달러대에서 출발한 뒤 장중 206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 상승 폭을 확대하며 종료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